

세계기도정보

- [우간다] 우간다, 대규모 식량 위기... 난민 수천 명 생명 위험
- [러시아] “재밌으면 전쟁범죄 아냐”...장기전에 인간성이 비틀려 가는 러 병사들
- [세계] 2023년, 기독교 박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 [영국] 북아일랜드, 청소년에게 낙태 교육...“생명 존중에 심각한 우려”
- [세계] 유엔난민기구, 세계 강제 이주민 1억 1천만 명...문화 기미 보이지 않아
- [아프리카] 사헬 지역서 폭력 만연...3,450만 명 인도주의적 지원 필요
- [태국] 태국, 동성애자 관광 산업 본격 지원 시행
- [중동] 작년 중동·북아프리카서 사망한 이주민 3천800명...5년 만에 최고
- [공공민주공화국] 민주공고서 무장단체 난민 캠프 공격...최소 46명 사망
- [인도] 인도 쿠키 기독교 소수 부족, 난민 3만 명 넘어...긴급구호 절실
- [이란] 이란, 1주일간 불법 마약 무려 13톤 압수
- [미국] 총 들고 등교하는 미국 학생들...학교들 앞다퉈 시 탐지기 설치



- ▶ 파 송 윤천석, 황나미(멕시코)
- ▶ 후 원 천준상(이숙영)-캄보디아, 김병렬(이미진)-말레이시아
윤상혁(김나래)-인도네시아, 김상홍(조지현)-말레이시아
우진호(김지현)-베트남, 윤요한(서사랑)-인도네시아,
허수성(허인영)-태국
- ▶ 개척교회 부르심의교회(경연우목사), 경남교회(한덕숙전도사),
물댄동산교회(김일석목사), 행복교회(정용수목사)
보물상자, 어린이전도협회
- ▶ 기 관 해피가정사역연구소(서상복소장), 남부산동노회자립위원회
부산성시화운동본부(이단대책), 위컴스

2023. 06
멕시코에서
온 편지



담임목사 김성철
47506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서로70번길 76
T. 051-504-1128 F.051-504-1187



하나님 나라!

윤천석, 황나미 선교사(멕시코/파송)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5월 29일 월요일 아침, 쿠바를 떠났다. 입국에 비해 출국은 순조롭지 않았다. 비행기를 타고 연결 공항인 파나마로 가는 동안 이상하게 계속 눈물이 난다. 짧은 쿠바 방문 기간, 너무 많은 이들이 나에게 있었기에, 생각을 끄기 위해 거의 매일 수면제를 먹으며 잠을 청했다.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멈추었던 생각들이 갑자기 나에게 밀려온다. 경유지에서의 11시간 동안에도 눈물은 멈추지 않는다: “팬데믹 기간, 멕시코에서 오병이어 사역을 하며 멕시코 땅의 교회들이 멈추지 않길 소망했는데, 난 왜 쿠바를 위해서는 그와 같이 깊이 생각하지 못했을까?” 죄책감이 밀려온다. 우리 단체가 원했던 인도자는 쿠바에서 나올 수 없다 할지라도, 힘써 친구들을 돕기로 결심한다. 감사하게 올리는 건장이 좋지 않아 모든 멕시코 사역을 멈추었다. 그리고 지금 언제까지 일지 알 수 없지만 나에게 쿠바의 문이 열렸다. “한 달씩, 두 달씩 그리고 석 달씩 국가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까지 이 기간동안 계속 쿠바에 들어가자!” 추수할 것이 곳곳에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들이 부족하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6월 5일 월요일, 오늘은 11일에 있을 안수식을 위해 파송교회에서 담임목사님 내외가 이곳을 방문하는 날이다. 그런데 어제 주일 설교 이후 몸이 많이 좋지 않다. 감기에 걸리면 여전히 코로나 때 겪었던 증상들이 똑같이 나타난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계속 코로나 검사를 하지만, 코로나는 아니다. 엄청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안수식을 위해 달려와 준 친구 내외가 감사하다. 도착하는 날 바로 쿠바에 대한 나의 생각을 나누었다: “목사님, 혹시 저로 인해 쿠바에서 문제가 발생해 그것이 파송 교회에 어려움이 되지 않는다면, 지금 제가 건강으로 인해 멕시코 사역을 쉬는 동안 - 그리고 이 문이 저에게 얼마나 열려있을지 모르지만 - 그 기간 동안 최소 한 달에서 석 달씩 쿠바에 들어가 아직도 남아서 묵묵히 자신의 임지를 지키고 사역하고 있는 저희 목회자들을 한 명씩 찾아가 위로하고 싶습니다. 친구가 아닌 담임 목사님으로 교회를 대표해 생각하시고 허락해 주세요.” 그는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잘 알기에 즉답을 피하며 말한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목사님, 제가 목숨을 걸지 않고 어떻게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의' 일수는 없지만, 희생 없는 곳에 열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몸무게 4kg이 빠져 돌아가며 나에게 말한다: “석 달은 안되고 최대 한 달이다!”

10분의 만남

5월 24일 수요일 새벽 2시, 바지 2벌 그리고 남방 4개 등 최소한의 갈아입을 옷만 백팩에 챙기고, 이민 가방 2개와 케리어까지 모두 의약품으로 가득 채워 입국심사에서 나를 통과시켜 줄지, 아닐지 불안한 마음으로 쿠바에 입국했다. 이것이 내 믿음의 크기인가 보다. 그러나 감사하게 입국에는 별문제가 없었다. 도착하자마자 हे수 목사님과 함께 수도 하바나로 향했다. हे수는 나에게 작년 한 해에 23만명이 미국으로 입국했다며, 쿠바 사람들은 약 백만 명의 쿠바의 젊은 이들과 기술자들이 작년 한 해에 쿠바를 떠난것 같다고 말한다. 바로 현지인들과 모임을 갖고, 또 저녁에는 쿠바에서 사역하는 한 선교사님을 만나 최근의 정보들을 서로 교환했다. 그도 हे수랑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공산주의인 쿠바에 최근 가난으로 인해 곳곳에 강도와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고 나에게 말한다.

4년 만의 방문이지만 이 기간 동안 엄청난 변화가 쿠바에 있었다. 전 세계가 팬데믹과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가난한 쿠바는 그 강도가 더 심했다. 하바나에서 모임들을 마치고, 그날 저녁 바로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 까마웨이로 향했다. 휘발유를 구할 수 없어, 이동 수단을 찾지 못하는 현지인들과 달리 외국인들을 위해서는 전용 고속버스가 있었다. 그러나 까마웨이까지는 9시간의 거리다. 중간중간 지나는 터미널 중 한 곳에서 '알레이다' 여 목사를 만나기로 했다. 10분의 만남을 위해 그녀는 3시간의 거리를 어렵게 버스를 갈아타고 달려와 주었다. 새벽 2시가 넘어 도착한 한 터미널에서 4년 만에 그녀를 만났다. 지나는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남아 있다. 의약품을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가 나에게 말한다: “목사님, 지금 이곳의 민심이 흉흉해요. 목사님, 절대 아무도 믿지 마세요. 당신의 제자들도 믿지 마세요.” 10분의 만남 후 그녀는 6시까지 기다렸다가 첫차를 타고 다시 3시간의 여행을 떠난다. 아무도 믿지 말라는 그녀의 말이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한다.

정말 소망이 없는 것일까?

5월 25일 목요일, 9시간의 이동 후 도착한 까마웨이, 이곳도 과거 내가 알던 그 모습이 아니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나에게 하는 말: “목사님, 이제 더 이상 이곳에 소망이 없습니다. 모두가 기회만 있다면 쿠바를 떠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정말 이곳에 소망이 없는 것일까? 4년전 हे수 목사의 교단에 120여개의 교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 70여 개도 되지 않는 교회가 남아 있다. 많은 목회자가 자신의 임지를 버리고 떠났다. 내가 사랑했던 로베르토 목사도 자신의 임지를 벗어나 생계를 위해 일을 한다. 그러나 난 누구도 비난할 수 없다. 이들의 상황에 가슴이 아플 뿐이다.

5월 26일 금요일, 지방의 마을들을 둘러보러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 젊은 목사를 만났다.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는지 물었다. 그는 강에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팔던지 아니면 키우는 닭의 계란을 팔아 생활하며 임지를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 한 달에 12불이 안 되는 돈이다. 그가 나에게 자신의 안수증과 신학교 졸업증을 보여주며 말한다: “목사님, 제가 당신의 졸업생입니다.” 새것같이 고이 간직한 그의 졸업장과 안수증명서를 보니, 나의 가슴이 먹먹하다. “그래, 하나님이 소망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소망 없다고 내가 말하지 말자! 아직도 이 땅에 남아 사역하는 졸업자들을 찾아 생계 때문에 임지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돕자!”고 다짐한다. 지금도 자신의 임지를 지키며 사역하는 졸업생 목회자 가정들을 확인해 본다. 현재까지 38가정이다. 지금 훈련받고 있는 학생들을 합하면 69가정이다. “하나님 아버지, 백 가정이어도 좋습니다. 저에게 힘주소서.”

기도제목

1. 8월 쿠바 입국 준비가 현지인들과의 시간 조율 가운데 잘 이루어지도록.
2. 8월에 전달해야 할 쿠바 의약품들이 잘 모여질 수 있도록.
3. 의약품 사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지역 교회들이 이 일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4. 새롭게 안수받은 멕시코 목회자들이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며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